

<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잃은 양을 찾으라>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찾으라고 할 때 ‘섭리사의 잃은 양’을 찾아야,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행하는 자에게 그간 원하는 뜻을 행하신다.
2. ‘자신에 대해 잃은 것’을 찾아야 된다. 찾으라고 할 때 못 찾으면, 아주 잃어버리게 된다.
3. ‘주’를 제대로 알고 찾아야, 찾게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주와 통하지도 않고, 자아도취 해서 홀로 살게 된다.
4. <주를 제대로 아는 것>이 ‘구원 길을 가는 것’이다.
5. 제대로 모르고 믿으면,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.
6.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먼저 갖춰야 할 것은 ‘구원받게 해 주는 주를 제대로 아는 것’이다. 이를 배우든지 노력해서 먼저 갖춰야 된다.
7. 섭리사에 휴거된 사람들이 많지만, 어느 급으로 휴거되었느냐가 중요하다. 온전한 휴거다. 보다 차원 낮은 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산다. 이 세상에서도 육이 섭리사에 온 자는 많지만,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귀하게 여기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과 같다.

8. 어떤 곳을 개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완공되듯이, ‘잃은 양’을 찾거나 ‘어린 생명’을 전도할 때도 일정 기간 동안 해야만, 한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시킬 수 있다. 휴거를 이룰 때도 그러하다.
9. 저마다 계속해서 ‘잃은 양’을 한 명씩 찾고, ‘섭리에 전혀 오지 않은 생명들’도 전도하여라. 땅에서 전도 공적상을 받아야, 하늘나라에서도 공적자가 된다.
10. 40일 동안 <2차 기도 기간>에 들어갔으니, 기도하면서 ‘잃은 양’을 찾고, 이제는 생명들을 사탄과 악한 자에게 뺏기지 말아라. ‘자기관리’도 ‘생명관리’도 정성을 다해서 함으로 뺏기지 말아라. 한 번 뺏기면, 날아간 새를 잡는 것같이 힘들다.
11. 성령님과 함께 정성을 다해, 전심으로 행하여 ‘잃은 양’을 계속 찾아라.